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독회협력위원회 모임**

일시 : 4월 11일(토) 오전 7시 30분  
장소 : 성가대실

**• 선교위원회 모임**

일시 : 4월 12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교회 초등부실

**•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날짜 : 4월 24일(금) ~ 26일(주일)  
장소 :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강사 : 호성기 목사 PGM(People for Global Mission) 국제대표

**•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

- \* 날짜: 6/29(월) ~ 7/3(금)
- \* 장소: 니콰라과 (김향자 선교사 선교지)
- \* 모집인원: 150명 (선착순 모집)
- \* 문의 : 담임목사(248-310-9921)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4월 24일(금) - 26일(주일)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People for Global Mission)

- 4월 24일(금)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 4월 25일(토) 오전 6:00 선교적인 교회는 기도로 부흥한다
- 4월 25일(토)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
- 4월 26일(주일) 오전 8:00, 10:30 선교적인 교회는 사명으로 산다

남부플로리다 감리교회

**지난주 헌금 통계**

<b>일반헌금 \$18,426.00</b>	심일조: \$6,860.00 주 일: \$4,331.00	감 사: \$1,750.00 기 타: \$5,485.00
<b>지정헌금 \$11,980.00</b>	목장선교: \$450.00 건 축: \$10,030.00	개인선교: \$1,5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 부활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160장(통150) 무덤에 머물러

기도 Prayer / 정철조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1. 참소망
2.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 요(Jn) 20:19~21 ..... 다같이
- ▲ 설교 Sermon ..... 권태홍 목사

## < 부활의 능력 >

### The power of resurrection

성만찬 Holy Communion

- ▲ 파송찬송 Closing Hymn/ 주가 일하시네
- ▲ 축도 Benediction .....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4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4월 5일	1부	Unity	담당자	정철조장로	열매목장
	2부			유영래장로	
다음주 4월 12일	1부	Unity	담당자	구자현장로	물댄동산 목장
	2부			이정석권사	

## 설교요약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소망과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은 신앙의 중심이며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죄책감과 기대가 무너진 상실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죄 사함, 빛의 탕감, 병에서의 놓임과 같이 사람을 얽매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감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죄책감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참된 평안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꿔주세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세요”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치지 않으시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실제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하여 생명의 증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흔적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닫혀 있던 삶은 열리고, 멈춰 있던 발걸음은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장면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닫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상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도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 <설교 요약>

이 평강은 상황이 나아져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평강입니다. 보이지 않던 결박들이 하나씩 풀리고, 흐트러졌던 내면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자리를 지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며, 멈추어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서시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며, 닫힌 삶이 아니라 열려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걷게 하며,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 < 나눔 질문 >

- 1)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가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은 어디인가?
- 2)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묶임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염려, 걱정, 부담을 풀어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3)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보여주셨으며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상처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소망은 무엇인가?
- 4)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는데, 최근 내 삶에서 두려움, 무력감, 좌절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금주 애찬 섬김			
	금주 (4월 5일)		다음주 (4월 12일)
	박영희, 고태영권사		정미숙, 정철조장로
	생일감사		범사감사
	열매목장		물댄동산목장